

국내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 동향 및 중재 효과 분석*

김영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특수교육ABA 전공, 교수)
주슬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특수교육ABA 전공, 석사과정생)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2010년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실천 연구의 정량적 검토를 실시되었다. 첫째,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연구의 동향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대상 논문의 학술지 및 출판연도별 연구현황, 대상자의 성별과 장애유형, 중재 환경 및 중재방법, 연구설계, 종속변수,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중재충실도를 알아보았다. 둘째, 개별 연구에 나타난 중재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비중복비율(PND)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PND가 관련 변인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국내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주로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보다는 개별 수준에서 단일대상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중재 충실도 등의 연구의 질은 70% 이상의 연구에서 확보되고 있었다. 전체의 평균 PND는 94.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관련 변인에 따른 PND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긍정적 행동지원, 중학교, 양적 분석, 장애

* 2024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교신저자 : ypkim@ut.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생애적 관점에서 중학생의 시기는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으로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다. 첫째, 중학생들은 인간관계와 학업 성공에 필수적인 사회적 및 정서적 역량에서 상당한 성장을 경험한다. 효과적인 사회정서적 학습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개선하며,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학교 분위기를 촉진한다. 이는 학생들 사이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높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줄이며, 학업 성적과 출석률을 향상시킨다(Rosen 등. 2022). 둘째, 중학교 시기는 자아개념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의 학업 동기와 심리적 안녕에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더 명확한 인식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들의 감정 안정성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원하는 교육 전략은 청소년기의 도전을 넘어서는 데 필수적이다(Marsh & Craven, 2006). 셋째, 중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추상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포함하여 상당한 인지 성장을 경험한다. 이 시기는 또한 도덕 발달에 중요한데, 학생들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가치를 이해하고 질문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인식하게 되며, 그들의 도덕적 추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해진다. 넷째, 중학생들은 신체 성장과 사춘기를 겪으며, 이는 개인별로 신체적 성숙도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조정력과 운동 능력이 변화하고,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휴식이 더 필요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중학교는 학생들이 미래의 교육적 및 개인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및 신체적 기술을 개발하는 전환기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 실천과 지원적 학교 환경은 이러한 발달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2011).

이러한 중학생의 시기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사춘기의 특성상 여러 가지 행동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주요 행동 문제는 학교 생활과 규칙 준수(Spear, 2000), 충동적인 행동과 반항적 태도(Steinberg, 2005), 또래와의 갈등(Juvonen., Nishina, & Graham, 2000), 집중력 저하 및 위험한 행동 추구(Casey, Jones, & Hare, 2008) 등이 있다. 이러한 발생가능한 행동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 개인의 문제로 보고 대응책을 찾기보다는 학교 차원의 행동 문제 예방 및 중재 방법으로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원(SW-PBS)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 환경과 학생 결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SW-PBS가 시행된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 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학생들의 지각, 무단 결석, 그리고

교무실 방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의 사회 기술 교육, 교사로부터의 칭찬 노트, 학교 규칙 게시, 감정 및 행동 장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었다(Caldarella 등, 2011). 하지만, 일반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특수학교급 위주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병건, 박유정, 고혜정, 2020; 김지영, 고혜정, 2014). 사실상 긍정적 행동지원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행동적 지원 체계가 아니며 모든 학생의 행동 지원을 위한 시스템(Horner, Sugai, & Anderson, 2010; Lewis & Sugai, 1999)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급 학교 수준에 따른 긍정적 행동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중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실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특수학교급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학교 일반학급을 포괄하는 긍정적 행동지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문헌을 수합하여 양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연구 현황과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문헌을 수합하여 양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국내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연구 현황과 중재효과를 파악하여 후속 연구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의 동향 및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의 중재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의 수합을 위하여 2024년 3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원(KISS) 등에서 “중학교”, “긍정적 행동지원”을 주제어로 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첫째, 2010년 이후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행된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중재 연구로 제한하여 대상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그 결과 310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둘째, 그 중에서 등재(후보)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과 실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셋째,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선행 문헌고찰 논문(김병건, 박유정, 고혜정, 2020; 김지영, 고혜정, 2014; 박은영, 신미경, 채수정, 2018)에서 참조한 연구들을 보완적으로 수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연구에 해당하는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된 논문은 모두 17편이었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 선정된 17편의 대상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 및 특성에 따른 분류와 각 범주에 따른 효과크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선행 문헌분석(김병건, 박유정, 고혜정, 2020; 김지영, 고혜정, 2014; 박은영, 신미경, 채수정, 2018)의 연구를 참조하여 학술지 및 출판연도, 대상자의 성별, 장애유형, 중재환경, 중재방법, 연구설계, 종속변수, 팀 구성, 관찰자간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중재충실도의 분석변인을 선정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비중첩 자료의 백분율(Percent of Non-overlapping Data)을 말하는 비중복비율(PND)를 사용하여 각 연구별 중재의 효과크기를 측정하였다. PND 값은 각 논문에서 제공된 그래픽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논문별로 개별 그래프의 비중복비율을 계산하였고, 관련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자료 처리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국내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의 동향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명의 연구자가 대상 논문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자간 일치 여부를 알아보았으며, 두 번째 연구문제인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효과크기를 계산하고 평균효과크기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1) 분석자간 일치도

제1연구자가 전체 논문 17편을 자세히 분석하여 코딩을 하였으며, 제2연구자가 30%인 5편의 논문을 랜덤으로 선택하여 분석 기준에 따른 내용을 코딩하였고 이를 제1연구자의 분석 내용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내용에 오류는 없어서 분석자간 일치도는 100%이었으나, 다소 정교화가 필요한 것은 논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2) 통계 처리

두 번째 연구문제인 관련변인(연구환경 및 연구의 질 관련 변인)에 따라서 중재의 평균효과 크기(평균 PND)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jamovi 2.3.28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oneway-ANOVA의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의 동향 및 특성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의 동향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대상 논문의 학술지 및 출판연도별 연구현황, 대상자의 성별, 장애유형, 중재환경, 중재 방법, 연구설계, 종속변수, 팀구성, 관찰자간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중재충실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및 출판연도별 분석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는 총 17편으로, 7개의 학술지에서 출판되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된 학술지는 ‘정서·행동장애연구’로, 총 5편(29.4%)이었으며, 다음으로 ‘행동분석·지원연구’에서 4편(23.5%)이 발표되었다. 출판연도별로는 2019년에 가장 많은 4편(23.5%)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던 시기임을 나타낸다. 학술지 및 출판연도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2) 연구대상의 성별, 수, 장애유형

연구대상 학생의 수는 총 64명으로 연구 당 평균 대상 아동의 수는 3.58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 25명(64.1%), 여자 14명(21.9%)이었다. 단, 대안학교에서 보편적 중재를 실시한 두 편의 논문(25명)에서는 대상 학생의 성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39명의 연구대상의 성별 및 장애유형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연구가 7편, 자폐성장애에 해당하는 연구가 4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연구가 2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에 해당하는 연구가 1편으로, 전체 분석 논문 가운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

긍정적행동지원연구

<표 1> 학술지 및 출판 연도별 분석결과

학술지 \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정서·행동장애연구			1							3				1		5
지적장애연구		1														1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1														1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			2									3
특수교육학연구				1	1											2
특수아동교육연구					1											1
행동분석·지원연구										1		1	2			4
합계	0	2	1	2	2	0	2	0	0	4	0	1	2	1	0	17

<표 2> 연구대상의 성별 및 장애유형

성별 \ 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계(%)
남	14	10	1	25(64.1)
여	7	5	2	14(21.9)
계	21	15	3	39(100)

문은 88.2%이었다. 나머지 3편의 논문은 일반학생이나 장애위험학생, 또는 장애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분석대상 논문 중 연구대상이 중학생과 함께 다른 학년군(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개별중재로 실시된 경우에는 중학생에 관한 자료만을 수집하였다.

3) 중재의 교수환경, 중재방법, 연구설계

긍정적 행동지원은 주로 특수학교(10편, 58.8%)와 특수학급(3편, 17.6%)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안학교에서 실시된 연구가 2편(11.8%), 치료실 1편(5.9%), 특수학교·방과 후 교육기관·가정에서 실시된 연구가 1편(5.9%)이었다.

긍정적 행동지원의 중재방법은 중다요소를 활용한 개별중재를 실시한 연구가 13편(76.5%)으로 중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한 개별중재가 가장 많았다. 학교나 학년 단위의 보편적 중재를 실시한 연구가 3편(17.6%), 보편적 중재와 중다요소를 활용한 개별중재를 함께 실시한 연구가 1편(5.9%) 있었다. 분석대상 연구의 연구환경 및 중재방법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대상 연구의 설계법으로는 중다기초선설계를 기본으로 한 연구가 12편(70.6%)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자들은 행동간, 상황간 또는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중다

<표 3> 분석대상 연구의 연구환경 및 중재방법

중재방법	연구환경	특수학교	특수학급	기타		계(%)
				대안학교	치료실 특수학교 · 방과후 교육기관 · 가정	
개별중재		8	3		1	13(76.5)
보편적중재		1		2		3(17.6)
개별중재와 보편적중재		1				1(5.9)
계(%)		10(58.8)	3(17.6)	2(11.8)	1(5.9)	17(100)

<표 4> 분석대상 연구의 연구설계

연구설계			연구(n)	계	
단일대상연구	중다기초선 설계	행동간	중다기초선	3	10
			중다간헐기초선	3	
			지연된중다기초선	1	
		상황간	중다기초선	3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1	
			중다간헐기초선	1	
		복수중재설계	1	1	
		중재철회설계	1	1	
집단대상연구	집단비교		2	2	
사례연구	질적분석		1	1	
합계			17	15	

간헐기초선 설계를 적용하거나 지연된 중다간헐기초선 설계 등의 변형된 중다기초선설계를 사용하였다. 세부 내역으로는 행동간 중다기초선 7편(중다간헐기초선, 지연된중다간헐기초선), 상황간 중다기초선 3편,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중다간헐기초선) 2편이었으며, 중재철회설계를 사용한 연구가 1편 있었다. 분석대상 연구의 연구설계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4) 관찰자간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중재 충실도 실시 여부

분석대상 연구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에서 다루어진 관찰자간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중재 충실도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석대상 논문 17편 중에 신뢰도를 측정된 논문

<표 5> 분석대상 논문의 변인에 따른 개괄적 정보

ID	성별(명)	장예유형(명)	환경	중재방법	단일대상 연구설계	종속변수	팀중재 유무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중재 충실도	PND
1	여(1)	자폐성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행동간 중다기초선	수업참여행동 (반응, 착석, 과제수행)	O	O	O	O	100
2	남(1)	자폐성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행동간 중다기초선	문제행동 (자해, 자리이탈, 자위)	O	O	O	X	100
3	남(1)	자폐성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행동간 중다간헐기초선	수업방해행동 (손 짚치기, 자리이탈, 과제비참여)	O	O	O	O	100
4	남(1)	지적장애	특수학교, 방과후 교육기관, 가정	중다요소	상황간 중다기초선	문제행동 (공격행동, 반사회적행동)	X	O	X	X	100
5	남(2)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문제행동 (자해, 공격행동, 소리지르기)	O	O	O	O	100
6	남(2), 여(3) [1학급]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특수학교	보편적중재, 중다요소 (개별중재)	복수중재설계	수업참여행동 (바르게 앉기, 지시따르기, 과제수행), 문제행동 (자리이탈, 수업방해행동)	O	O	O	O	81.3
7	남(12), 여(6) [3학급]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특수학교	보편적중재	집단 비교	사회성기술	O	X	O	O	.
8	남(2), 여(1)	지적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대상자간 중다간헐기초선	문제행동(공격행동, 자리이탈, 방해행동), 수업참여행동(집중하기, 지시따르기, 과제수행)	X	O	O	O	100

<표 5> 분석대상 논문의 범인에 따른 개괄적 정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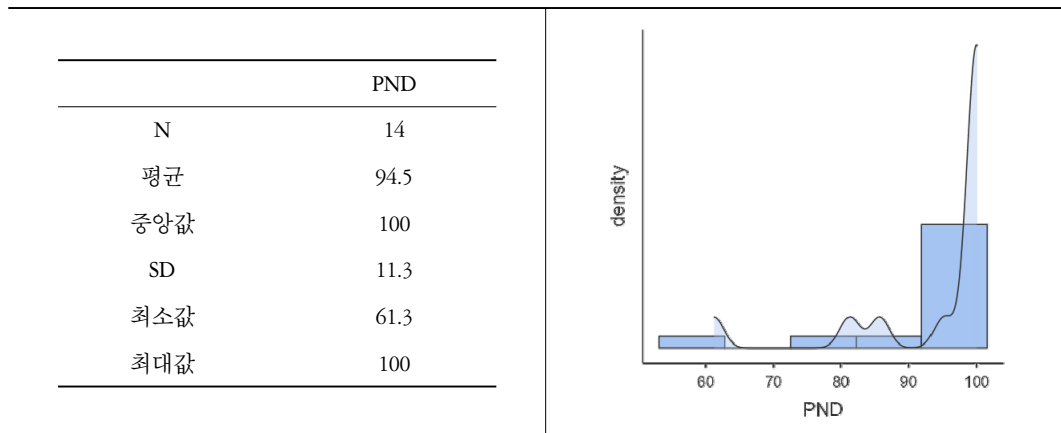
ID	성별(명)	장애유형(명)	환경	중재방법	단일대상 연구설계	중재변수	טיפ중재 유무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중재 충실도	PND
9	여(1)	지적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행동간 중다간헐기초선	문제행동(자리이탈, 찢기, 낙서), 수업참여행동(집중하기, 지시따르기, 과제수행)	X	O	O	O	100
10	남(1)	자폐성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행동간 중다간헐기초선	문제행동(자해 및 공격행동, 전이거부행동), 대체행동(요청행동, 전이관련 지시따르기)	O	O	O	O	100
11	여(1)	지적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행동 지연된 중다기초선	문제행동					61.3
12	여(1)	지적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상황간 중다기초선	문제행동,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시작행동, 사회적 반응행동)	X	O	X	X	100
13	23명	일반학생(17), 장애고위험군(2), 지적장애(2), 학습장애(2)	대안학교	보편적중재	집단 비교	적응행동, 학교분위기	O	X	O	O	.
14	2명	장애 고위험군(2)	대안학교	보편적중재	질적 분석	학교적응행동 (학교공부, 학교친구 및 교사, 학교생활)	O	X	X	X	.
15	남(1)	지적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행동간 중다기초선	수업방해행동 (자리이탈, 바닥에 눕는행동, 교실이탈)	O	O	O	O	100
16	남(1)	행동문제 중학생	치료실	생태학적접근	ABA 중재제거설계	문제행동(공격행동)	O	X	X	X	85.7
17	남(1)	지적장애	특수학교	중다요소	상황간 중다기초선	문제행동(자리이탈)	O	O	X	O	95.2

은 13편(76.5%)으로 양호한 자료제시가 이루어졌다. 신뢰도를 측정한 13편의 논문 가운데 12편은 90%이상의 높은 신뢰도가 측정되었다. 사회적 타당도와 중재 충실도는 각각 모두 12편(70.6%)가 실시하여, 각각 양호한 자료제시가 이루어졌다. 분석대상 논문 17편의 개괄적 정보는 <표 5>와 같다.

2.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의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였던 두 번째 연구문제인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중재의 효과크기로서 비중복비율(PND)을 알아보았다. 분석대상 연구 17편 중 보편적중재를 실시한 3편의 논문은 PND를 계산할 수 있는 연구설계(안해님, 박지연, 2023; 임은숙, 백은희, 2018; 임은숙, 황복선, 2019)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보편적중재 논문 3편을 제외한 단일대상연구 14편의 논문의 비중복비율(PND)을 산출해본 결과 값이 90%이상으로 매우 효과가 있는 중재로 나타난 논문은 11편, 70~90%로 효과가 있는 중재로 나타난 논문은 2편, 70~50%로 의심되는 효과의 논문은 1편이었다. 분석한 논문 14편의 평균 PND 94.5%이었으며, 최소 61.3점, 최대 100점이었다. <표 6>은 논문별 평균 PND의 요약 통계치 및 밀도 그래프이다.

<표 6> 논문별 평균 PND의 요약 통계치 및 밀도 그래프



논문별 평균 PND가 장애유형, 중재 환경, 팀 구성 유무, 관찰자간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및 중재충실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중재 환경은 특수학교보다는 특수학급에서 평균 PND가 높았고, 팀 구성을 통한 중재가 아닌 개인 전문가 중재에서, 그리고 관찰자간 신뢰도를 파악한 연구에서 PND가 높았으나 사회적 타당도와 중재충실도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에서 오히려 높은 PND가 나타났으나,

<표 7> 논문별 평균 PND에 대한 관련 변인별 차이 검정 결과

변인		n	Mean	SD	SE	χ2	df	P
중재 환경	특수학교	9	93.1	13.4	4.47	1.48	2	0.478
	특수학급	3	100.0	0.00	0.00			
	기타	2	92.8	10.1	7.15			
팀 구성 여부	유	10	92.3	12.9	4.07	2.01	1	0.156
	무	4	100.0	0.00	0.00			
관찰자간 신뢰도	유	13	95.2	11.4	3.18	1.96	1	0.162
	무	1	85.7	-	-			
사회적 타당도	유	10	94.3	13.0	4.11	0.502	1	0.479
	무	4	95.2	6.74	3.37			
중재충실도	유	10	93.8	12.8	4.06	0.0706	1	0.790
	무	4	96.4	7.15	3.57			

전체적으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별 PND는 발견되지 않았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연구현황을 조사하고, 분석대상 논문의 PND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연구는 ‘정서·행동장애연구’, ‘행동분석·지원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의 순으로 많이 발표되었고, 2019년에 가장 많은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다. 연구대상은 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중학생들이었으며, 주로 남학생이 많았다. 또한, 많은 연구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의 특수교육 환경에서 실시되었으며, 중재방법으로는 중다요소를 활용한 개별중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일반교육 환경에서도 보편적 중재를 실시한 연구가 2편 있었으나 대안교육 환경이었다는 특수성이 있었다. 연구설계는 개별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다기초선설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보편적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단 비교 또는 질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분석 대상 연구에서 관찰자간 신뢰도는 대부분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타당도와 중재 충실도도 70% 이상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개별 연구에 나타난 중재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비중복비율(PND)을 확인하고,

이러한 PND가 관련 변인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분석 대상 논문의 평균 PND는 94.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재환경, 팀 구성 여부 등의 연구 환경 및 관찰자간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그리고 중재 충실도 등의 연구의 질 관련 변인에 따른 평균 PND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원 및 중재에 합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실천적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기관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Horner, Sugai 및 Anderson(2010)은 긍정적 행동 지원이 특수교육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체계적인 중재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일반 중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은숙 등(2018, 2019)은 일반학교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성을 논의하였으나, 국내 일반학교에서의 실질적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특수교육기관을 넘어 일반학교에서 장애 및 비장애 아동을 포함한 긍정적 행동 지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Marsh & Craven, 2006).

둘째, 긍정적 행동 지원이 3단계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연구는 주로 3수준의 개별적 지원에 치우쳐 있다. 특히, 분석된 연구 중 학교 전체 또는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1차 수준의 지원을 실시한 연구는 4편(특수학교 2편, 대안학교 2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제한적인 접근은 국내 중학교 긍정적 행동 지원이 개별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 관점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SW-PBS)은 단순히 개별 학생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Horner, Sugai 및 Anderson(2010)은 보편적 1단계 지원이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행동 규범을 심어주고, 문제 행동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시행된 SW-PBS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의 규칙 설정, 교사의 칭찬 노트 활용,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Caldarella et al., 2011). 이처럼 보편적 지원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개별적 중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는 이점도 제공한다. 보편적 지원의 부족은 일반학생의 행동 문제 예방 및 개선에 한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통합적 환경 조성을 어렵게 만든다. Meyer 등(2021)은 학교 전체와 학년 단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1단계 지원이 잘 설계될 경우, 모든 학생의 행동 문제가 감소하고 학습 분위기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Eber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2단계 지원은 초기 행동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며, 고위험 학생들의 긍정적 행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단계에서의 지원은 종종 학업 지도와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결합되

어 실행되며, 개별 중재로의 전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국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반학교에서도 보편적 1단계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2단계 지원을 활성화하여 소 집단 학생들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화된 중재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 행동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과거와 비교했을 때 관찰자간 신뢰도, 중재 충실도 및 사회적 타당도 등의 연구 질적 지표가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김영표(2019)는 국내 긍정적 행동 지원 연구의 질적 지표가 과거보다 증거기반의 접근을 통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단일대상연구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재현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분석 대상 연구 중 관찰자간 신뢰도, 사회적 타당도, 중재 충실도를 평가한 연구는 약 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Caldarella 등(2011)은 긍정적 행동 지원 연구에서 이러한 질적 지표를 90%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연구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평가 방법과 데이터를 통해 연구 질적 지표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장애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Lewis와 Sugai(1999)는 긍정적 행동 지원을 일반교육 환경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순히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넘어,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내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중학교 긍정적 행동 지원은 특수교육기관 중심에서 일반학교로 확대되고, 개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임.

김병진, 박유정, 고혜정 (2020).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PBS) 적용 효과: 단일대상 연구 메타분석. *행동분석 · 지원연구*, 7(1), 19-36.

김영표 (2019). 발달장애학생의 반복 · 상동행동 중재 효과에 관한 메타 분석: 국내 학술지 연구를 대상으로. *지적장애연구*, 21(4), 87-106.

*김정민, 전병운, 임해주 (2014).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중증 자폐성 장애 중학생 특수학급에서의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9(2), 45-67.

긍정적행동지원연구

- 김지영, 고혜정 (2014).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 행동지원(PBS) 연구 메타분석: 국내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1), 159-178.
- *김창호, 이미애, 이근매 (2014). 긍정적 행동지원(PBS)이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의 자해행동, 자살행동, 자위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6(4), 287-306.
- *박귀염, 김은경 (2022).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성장애 중학생의 수업방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9(2), 75-104.
- 박은영, 신미경, 채수정 (2018).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단일대상 연구 메타분석. *행동분석·지원연구*, 5(1), 27-48.
- *박주연, 이희광 (2011). 학교, 방과후교육기관, 가정간 연계를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경도정신 지체 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3(1), 1-27.
- *백은희, 박계신, 이선희 (2019).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및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5(3), 21-44.
- *심현양, 김은경, 이미영 (2019). 연속적 지원체계의 학급차원 긍정적 행동지원이 특수학교 중학생의 수업참여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5(2), 107-134.
- *안해님, 박지연 (2023). 학년 단위의 긍정적 행동지원에서 실시된 보편적 지원이 특수교육 중학생의 사회성 기술과 특수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9(1), 1-28.
- *유환조, 이영철 (2016). 긍정적 행동지원이 지적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1), 61-83.
- *유환조, 이영철 (2016). 긍정적 행동지원이 지적장애를 수반한 자폐성장애 학생의 문제행동과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4), 347-368.
- *이선희, 백은희, 박계신 (2021).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지원이 특수학교 중증 자폐성 장애 중학생의 자해, 공격, 요청 및 전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8(1), 61-87.
- *이연아, 백종남 (2022). 특수학교에서의 개별차원 긍정적 행동지원이 지적장애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분석·지원연구*, 9(2), 133-155.
- *이유리, 곽승철 (2011). 긍정적 행동지원이 정신지체 학생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3), 289-315.
- *임은숙, 백은희 (2018).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대안학교 중등부 학생들의 적응행동 및 학교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5(1), 1-22.
- *임은숙, 황복선 (2019).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한 대안학교 중등 장애 고위험군 학생의 학교적응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 *행동분석·지원연구*, 6(1), 71-100.
- *임해주, 김정민, 백은희, 전해영 (2013).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중증 정신지체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8(1), 49-69.

- *조정연 (2012).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 공격행동을 나타내는 남자 중학생 사례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173-192.
- *최미점, 백은희, 김정민 (2013).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정신지체 학생의 자리이탈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2), 97-114.
- Caldarella, P., Shatzer, R. H., Gray, K. M., Young, K. R., & Young, E. L. (2011). The effects of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on middle school climate and student outcomes. *Research in Middle Level Education*, 35(4), 1-14.
- Casey, B. J., Jones, R. M., & Hare, T. A. (2008). The adolescent brai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24(1), 111-126.
- Eber, L., Sugai, G., Smith, C. R., & Scott, T. M. (2009). Wraparound and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in the School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7(3), 106-117.
- Horner, R. H., Sugai, G., & Anderson, C. M. (2010). Examining the evidence base for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42(8), 1-14.
- Juvonen, J., Nishina, A., & Graham, S. (2000). Peer harassment,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choo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349-359.
- Lewis, T. J., & Sugai, G. (1999). Effective behavior support: A systems approach to proactive school management.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31(6), 1-24.
- Marsh, H. W., & Craven, R. G. (2006). Reciprocal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formance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Beyond seductive pleasure and unidimensional perspectiv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 133-163.
- Meyer, K., Sears, S., Putnam, R., Phelan, C., Burnett, A., Warden, S., & Simonsen, B. (2021). Suppor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in the Classroom: Lessons Learned From Research and Practice. *Beyond Behavior*, 30(3), 169-178.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2011). *The Teen Brain: Still Under Construction*.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Office of Public Health and Science, NIH publication; no. 11-4929.
- Rosen, J. A., Hudson, K., Rotermund, S., Roberts, C., and Mackey, A.-L. (2022). *Social Emotional Learning in Middle School: Developing Evidence-Based Programs*. RTI Press.
- Spear, L. P. (2000). The adolescent brain and age-related behavioral manifestations.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24(4), 417-463.
- Steinberg, L. (2005).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in adolesc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9(2), 69-74.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Intervention Effects on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Middle Schools of South Korea

Kim, Young-py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Professor)
Ju, Seul-gi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Master's Stud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s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PBS) in South Korean middle schools and to quantitatively review the practice research related to PBS published in the country since 2010. First, to explor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PBS interventions in middle schools, the research analyzed academic journals and publication years, the gender and type of disability of subjects, intervention environments and methods, research designs, dependent variables, reliability, social validity, and intervention fidelity. Second, the effect size of the interventions in individual studies was examined by checking the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PND), and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s in PND existed based on related variables was also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PBS in South Korean middle schools is primarily conducted in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targeting students with intellectual and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the studies are often carried out at the individual level using single-subject research methodologies rather than at the school level. The quality of research, including reliability, social validity, and intervention fidelity, was secured in over 70% of the studies. The overall average PND was 94.5%, indicating a high level of effectiveness,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ND were found based on related variabl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oposed based on these findings.

Key words : Positive Behavior Support, Middle School, Quantitative Analysis, Disability

게재 신청일 : 2024. 05. 23

수정 제출일 : 2024. 11. 17

게재 확정일 : 2024. 12. 10

* Corresponding Author : ypkim@ut.ac.kr